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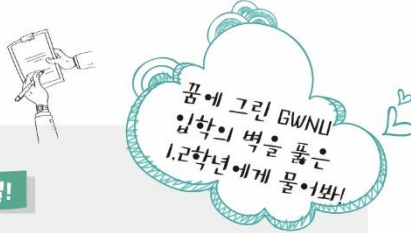
「GWNU전공로드뷰」



입학멘토단 꿈Tree 인터뷰

중어중문학과 16학번 나정아

지디지기백전백승 할 수 있는 GWNU 공략법



Q 강릉원주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자신만의 비결!

A (2학년, 김*지) 생활기록부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각종 교내 대회에 참여하고, 매년 학급의 장을 맡으며 리더십을 기른 것이 강릉원주대학교에 입학하는 데 있어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Q 면접 시 꿀 팁이 있다면?

A (2학년, 김*유) 자신감! 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기록부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희망하는 과외의 연관성을 찾아보고 노력한 점을 어필한다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희망하는 과외 전혀 관련 없는 활동을 했더라도 고등학교 생활 동안 자신이 노력한 부분을 어필해도 괜찮습니다.

(2학년, 김*지) 강릉원주대학교의 인재상을 미리 찾아보고 그에 맞춰 예상 질문을 뽑아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본 면접에서는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도 공부하고, 과의 향후 동향도 알아보았습니다. 간혹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으니 생활기록부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셔도 침착하게 자신의 주장을 밝히시면 됩니다!

(2학년, 박*민)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버리고 교수님께 자신의 장점과 희망하는 과에 적합한 인재임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인재상을 바탕으로 면접을 준비하시면 면접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2학년, 김*연)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의 실제 면접처럼 연습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 시 기본적인 자재와, 걸음걸이 등을 연습하고 면접 시에는 과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강릉원주대학교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한 부분은?

A (2학년, 김*연) 국립인 만큼 등록금이 저렴해서 좋습니다. 바다가 있어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2학년, 김*유) 학교 행사나, 설문조사 등의 교내 소식을 개개인에게 카드 뉴스 형태로 전달함으로써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고 학생들을 위한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2학년, 김*지) 저렴한 등록금은 물론 장학금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열리는 점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Q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A (2학년, 이*진) 비대면 수업에서 화상강의를 통해 처음 만나고, 메신저로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후에는 직접 만나 친목을 다졌습니다.

(2학년, 박*민)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메신저를 통해 친해지는데 어려움은 없었으며, 현재는 동기들끼리 두루두루 친한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강릉원주대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2학년, 김*유) 강릉원주대학교의 인재상인 해람인 걸맞게 저희 학교로 오셔서 본인의 역량과 인성을 갖추고 미래에 도전하는 학생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2학년, 김*지) 면접 때 떨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는 면접을 하길 바라요! 우리학교에 꼭 와서 학교를 빛내는 인재가 되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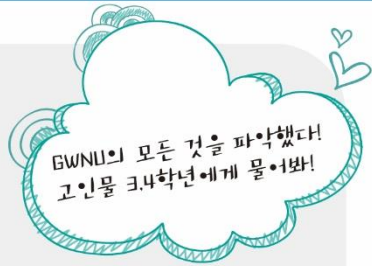
Q 강릉원주대학교에서 꼭 해보아야 하는 TOP 5는 무엇인가요?

- A** (3학년, 이*미) 발대식 참여해보기 (신입생 때 얻을 수 있는 좋은 추억과 타과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
- (4학년, 이*정) 학업 외 대외활동 ex, 홍보대사, 학생회 등
- (3학년, 나*오) 교환학생과 어학연수 가기 (다양한 나라가 있으며 희망하는 곳의 지원 조건 확인 후 준비할 것!)
- (4학년, 이*정) 국제 도우미 신청하기 (우리 학교 외국 학생들의 도우미가 되어 언어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는 일석이조 프로그램!)
- (3학년, 박*민) 동아리 활동

Q 신입생 때는 000 해야지~

A (4학년, 이*정) 신입생 때는 '늘 땀 흘리고 할 땀 하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두 개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한다면 좋은 추억과 좋은 성적 모두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학년, 박*민) 신입생 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기!' 과 행사부터 학교에서 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보면서 경험도 쌓고, 다른 과 학생들과도 친해 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Q 학점 잘 받는 방법과 학교생활 중 꿀 팁이 있다면?

A (4학년, 이*학) 수업 시간 즐지 않고 열심히 듣기! 특히 수업 반장을 하면서 교수님과 친해지면 학점은 따 놓는 당상~!
 (3학년, 이*미) 지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4학년, 이*적) 출석 관리를 잘하고, 모든 과제에 성의껏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시간표 꿀 팁!

A (4학년, 이*적) 공부량이 많은 과목들은 나눠서 듣는 것을 추천! 평상시에는 관촬자를 몰라도 시험 때 HELL 일 수 있으니 공강 만들겠다고 욕심부리지 말 것!
 저학년 때는 최대한 많은 수업을 듣고, 고학년 때에는 적게 수업을 들으며 자기계발 하는 것이 더욱 유리
 (3학년, 이*미) 저학년 때 교양을 다 신청해버리면 고학년 때 전공만 들어 지루할 수 있으니 교양은 적절히 배분할 것! 공강은 월요일을 퇴치하기 위해 월요일 공강 추천!
 (3학년, 이*미) 졸업하기 전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양은 반드시 저학년 때 미리 들어 놓는 것을 추천! 공강은 그 해 공휴일을 확인하고 만들기! (머리를 잘 쓰면 다른 친구보다 2일은 더 놀 수 있다!)

Q 마지막으로 강릉원주대학교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4학년, 이*적) 다양한 활동도 해보고 자기발전도 게을리하지 않아서 꼭 의미 있는 대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학년, 이*학) 1학년 때는 무조건 신나게 놀기~ 대학생활하면서 1학년 때 눈케 추억으로 많이 남습니다.
 2,3,4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해도 결코 늦지 않아요!
 (3학년, 이*미) 자격증은 언제나 쓸모가 있으니 한두 개의 자격증 특히, 언어 관련 자격증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따놓고 선배 후배 가리지 말고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세요~!

「GWNU전공로드뷰」 
입학멘토단 공Tree 인터뷰

유아교육과 20학번 이유빈

나를 위해 움직이는 대학, 강릉원주대학교



평생의 길이 좌우되는 대입과 전공 선택. 하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는 우리 사회에서 열일곱, 열아홉의 학생들이 진로를 정하고 이를 위해 스스로 앞날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일찍이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기에 유아교육 하나만을 바라보고 고등학교 3년을 내달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 대입을 마주한 제가 그 누구보다 자신 있던 것은 '전공관심도'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 강점을 알아줄 대학을 찾기 시작했고 그 해답은 강릉원주대학교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학업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 비교과활동까지도 다방면으로 활동한 결과물을 보일 수 있는 종합전형으로 지원했습니다. 성적의 상승세를 교과학습발달상황 측면에서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과 면접 평가 항목 중 전공적합성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 저에게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만을 바탕으로 평가하기에 고등학교에서 쌓아온 것들을 진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들을 기회로 삼아 합격의 길로 가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을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어렵다는 '정석'의 방식대로 준비해나갔습니다.
 기초과목부터 탐구과목 그리고 예체능과목에서까지 모든 활동을 유아교육과 연결 지으며 '나는 유아교육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녹여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종합격으로 가기 위한 단계인 면접을 준비하기에 앞서 먼저, 3년 간 고등학교에서 경험한 모든 활동을 하나씩 나열해보았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던 상황에 생각보다 많은 양이 막막하게 느껴졌지만 내가 했던 선택들은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일념으로 하나씩 골똘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활동에서 내가 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등등을 하나씩 새내려가니 마치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져 학급 친구들과 모의 면접활동을 진행할 때에도 경험하고 느낀 것을 막힘없이 말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실제 면접에서도 전공 관련 활동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받아 침착하게 면접을 볼 수 있었고 면접관님께서 진정으로 유아교육에 열정이 있는 지원자인 것 같다고 말씀해주셔서 그간의 노력과 이 학교를 선택한 까닭 모두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끝내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품에 안았을 땐 더할 나위 없이 기뻐 다른 대학들의 합격증에는 미련 갖지 않았습니다.
 요즘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소위 스펙이라 일컫는 취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야에 관심이 있어 더 배우고자 특정 전공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줄어가고 있고 취업률이 높거나 취업에 유리한 전공을 택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학이 취업의 도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교육의 장이 되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대학, 지역과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 등등 화려한 수식어를 자랑하는 교육 목표를 내세운 많은 대학 홍보 자료들 사이에서 눈에 띄던 강릉원주대학교의 "입학 후 교문을 나서기까지 24시간 학생들을 위해 움직이는 대학"이라는 문구는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신입생이 된 지금, 캠퍼스에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학생을 위해 움직이는 대학, 학생이 중심인 대학이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져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1학번이 될 예비 해람인들 또한 합격의 기쁨과 이 만족감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GWNU전공로드뷰」 입학멘토단 꿈Tree 인터뷰

다문화학과 18학번 강유희

재학생이 말한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강릉원주대학교 입학멘토단 꿈Tree 2기로 활동 중인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3학년 강유희입니다.

Q 강릉원주대학교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A 아무래도 학비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강릉원주대학교는 국립대라 가능한 부담 없는 학비와 든든한 장학제도가 있기에 믿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를 통학하는데, 시내 셔틀버스가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Q 대입 준비는 어떻게 했나요?

A 저는 수시를 준비하던 학생이었기에 수능보단 생활기록부에 좀 더 집중했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 학과를 희망하고 있었기에, 학과와 관련된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휴게소에서 직접 '인권 캠페인'을 진행하고, '차별'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고서를 써서, 제가 이 학과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준비를 해왔는지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A 다음으로 생활기록부는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셀 수 없는 정독은 물론, 메모지를 붙여가며 어떤 활동이었는지, 활동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면접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모두 말할 수 있었습니다.

A 원하는 대학교의 입시설명은 꼭 챙겨 들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 학교의 입학사정관님께서 오셔서 설명해주는 만큼 내가 미처 몰랐던 정보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금했던 것을 직접 질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입시에서 경쟁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면 그 학교에 비전, 인재상, 전형 등을 잘 정리해 알아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 저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면접이 있었습니다.
주로 '학과 적합성'에 대한 질문으로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비슷한 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들끼리 모여 '모의 면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면접의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사회복지를 희망하는 친구들끼리 모여 모의 면접을 하였습니다.
서로 피드백을 해주며 면접 실수를 줄어나갔고, 담임 선생님은 물론 다른 교과목 선생님과 여러 번의 면접 연습을 하여 자신감이 생기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접은 가능한 많이 연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Q 대학 생활을 잘하기 위한 꿀Tip이 있다면?

A 첫 번째로, 강릉원주대학교에는 신입생 장학금부터 성적우수 장학금, 자격증 취득 장학금, 국제화 장학금, 교수장학금 등 무수히 많은 장학제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잘 찾아보고, 그에 맞는 활동을 하여 장학금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방학 모의 토익, 영어 회화 특별강조, 진로·취업 특강, FAM 운영 등 국립이라 특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대학 생활을 좀 더 의미있게 보내고 싶다면 이런 학생지원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 역량을 기르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제화 프로그램입니다. 교환학생, 단기 어학연수, 국제워크캠프, 글로벌문화탐방, 국제 도우미 등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 찾지 않고, 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대생 특화 지원입니다. 브런치 특강, 여대생 리더십 아카데미 등 여대생만을 위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친구들끼리 같이 들으면 더 재밌는 학교생활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군사교육단(ROTC)입니다. 남녀 모두 가능하고,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있거나 혹은 진로가 고민되신다면 고려해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원화된 캠퍼스입니다. 강릉과 원주로 이원화 되어 있기에 원주캠퍼스 학생들도 강릉캠퍼스 수업이나 프로그램 등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공지사항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공모전, 특강, 장학제도 등의 정보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말고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공지사항을 통해 공모전에 참여하였고, 이에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입학멘토단 꿈Tree, 다양한 서포터즈 등도 공지사항을 통해 모집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는 것이 Tip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GWNU전공로드뷰」



입학멘토단 꿈Tree 인터뷰

유아교육과 19학번 홍영아

내가 선택한 우리 학교, 우리 학과 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왜 많은 학교 중 우리 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저는 강릉원주대학교의 해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 유치원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소통 협력할 수 있는 피아제 학습제와 학과 행사로 마음의 소리라는 소통하는 행사가 있으며, 부설 유치원이 교내에 있어 아이들과 더욱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관련 경험을 통해 임용고시나 교육자로서의 도전정신을 기를 수 있고, 기숙사에서 입사하여 자기 주도적 능력과 여러 학문을 키워나가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의 인재상

우리 대학교의 인재상, 해람인

해람인
해람(解纒)이란 배의 닻줄을 풀고 출항한다는 의미로서 해람인은 역량과 인성을 갖추고 미래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인재이다.

이 답변은 실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시절 면접 당시 했던 답변입니다. 많은 학교 중 왜 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지원했냐고 하셨을 때 하고 싶은 말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면접시간은 정해져 있고, 짧게 임팩트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인재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의 인재상, 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의 인재상을 찾아 이해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1. 인재상을 기반으로 한 면접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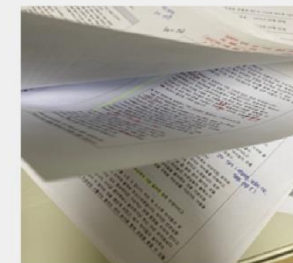
많은 학생이 알고 있듯이 고등학교 3학년 면접을 준비할 때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은 이미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즉, 고등학교 재학 시절 했던 활동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입학하기 위해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인재상을 기반으로 하여 면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학교에서, 이 학과에서 어떤 역량을 갖춘 학생을 뽑고자 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강릉원주대학교에 오고 싶었던 이유를 인재상과 관련지어 학교 행사, 학교 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접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어떤 역량을 갖춘 학생을 뽑고자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유아교육과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인성 함양,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타인과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간 학교 활동 중 이 역량과 관련된 활동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키즈덤'이라는 동아리에서 2년 동안 활동했는데 이 동아리는 어린이집, 유치원교사 혹은 아동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이 모여 관련 활동을 하는 동아리였습니다.

학부/학과	구분	유아교육과 인재상
인성교육	인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높은 수준의 유아교육역량 차이있는 유아교육현장에 기여하는 실천적인 유아교육자 역량 교사로서의 인성과 사명감을 갖춘 자질을 갖춘 인재
	인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높은 수준의 유아교육역량 차이있는 유아교육현장에 기여하는 실천적인 유아교육자 역량 교사로서의 인성과 사명감을 갖춘 자질을 갖춘 인재
교과교육	교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높은 수준의 유아교육역량 차이있는 유아교육현장에 기여하는 실천적인 유아교육자 역량 교사로서의 인성과 사명감을 갖춘 자질을 갖춘 인재
	교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높은 수준의 유아교육역량 차이있는 유아교육현장에 기여하는 실천적인 유아교육자 역량 교사로서의 인성과 사명감을 갖춘 자질을 갖춘 인재

저는 여기서 부원과 부장을 맡아 동아리를 진행하며 각종 활동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여러 사회문제에 관한 토론도 진행했습니다. 원내 CCTV 설치 여부, 노키즈존 찬반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저의 생각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면접에서 “학교 재학 시절 동아리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이 있나요?”라는 질문에서 내가 사회문제에 고교 재학시절부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답변하기 위해 위 토론 활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주장도 말하고 다른 의견도 이야기하면서 이 질문과 관련되어 교수님과 2번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그 당시 논란이었던 버리 유치원, 어린이집 폭력, 라돈으로 인한 원내 환풍문제 등도 언급하며 현재 유아교육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내가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2. 내가 한 활동,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

입시생들이 면접 준비를 하며 많이 간과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너무 학교생활을 많이 해서 활동이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거나 그 당시 대충 생활기록부 기록을 목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활동에 대해 느낀 점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이나 면접관은 학생이 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학생에게 면접 시 질문을 합니다.



만약 학생이 답을 하지 못한다면 이 활동은 거짓 혹은 열심히 한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기록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적힌 내가 한 활동에 대하여 반드시 왜 이 활동을 시작했는지, 과정은 어떠했는지, 느낀 점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면접 질문을 준비할 때 면접의 답변은 왜 했고, 무엇을 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느낀 점은 무엇인지 순으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면접 준비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저는 했던 활동을 기반으로 질문을 미리 작성하고, 답변을 위 순서에 맞게 써보았습니다. 이렇게 미리 답변을 적어보니 면접 준비가 암기가 아닌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경험을 이야기하는 면접 준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저는 면접 준비 파일에 역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대해서도 답변을 미리 작성해보았습니다. 유아교육과에 관련되어 그 세부적인 내용,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 연령대, 장애통합교육과 같은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지, 가장 기대되는 과목은 무엇인지도 미리 생각해두었습니다.

이는 학교 학과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아교육과나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학과에서 어떤 학문을 배우고 역량을 키워나가는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경영공학과, 해양생물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등과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지 학생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면접장에서 이 학과가 무엇을 배우는 학과냐고 물어봤을 때 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과에 대한 관심이 낮다고 생각하여 이 학교에 합격하지 못하고, 나보다 성적이 낮은 친구의 경우라도 관심이 있는 답변을 했다면 내가 불합격하고 그 친구가 합격하는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한 학과에 대해서는 내가 학과의 커리큘럼이나 행사, 관련 내용 등을 미리 알아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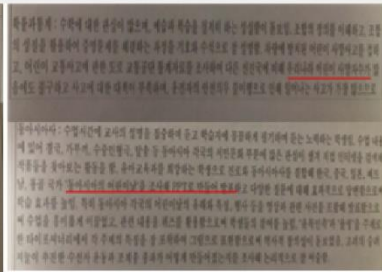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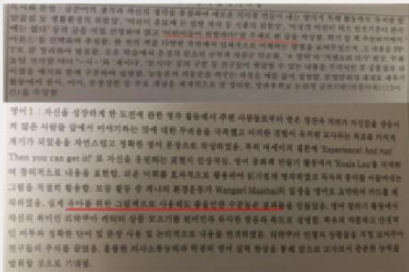


3. 나만의 특색 있는 학과 관련 활동.

저는 유아교육과 입학에 준비할 때 문득 아동 관련 봉사 활동, 관련 동아리, 학생자치회 등은 유아교육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 모두가 할 수 있는 활동일 것 같았습니다. 즉, 차별화된 모습이 있어야 합격의 문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생활기록부 중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부분에서 전공 관심도를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은 교과에 관한 학생의 관심도, 관련 활동, 수행평가 등에 관련된 내용을 학생이 한 것을 기반으로 선생님께서 적어주시는 부분입니다. 저는 수행평가 하나를 하더라도 유아 혹은 아동과 관련활동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위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굵어 관련 교과목인 독서와 문법에서는 수행평가에서 창의적인 글쓰기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주제를 선택하거나 교과서에 제시되어있는 주제 중 하나를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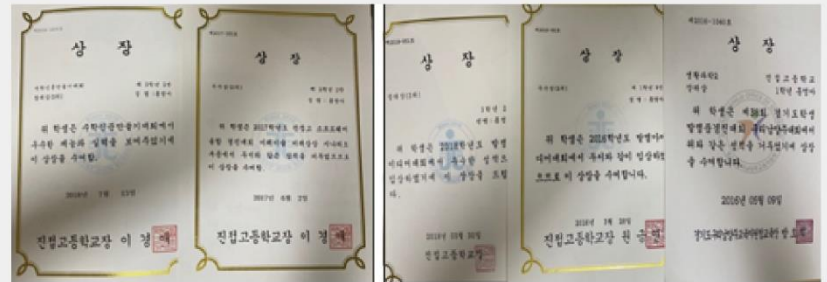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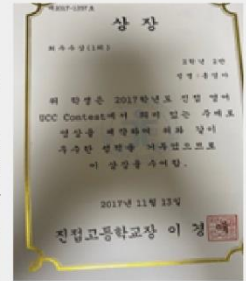
하지만 저는 교과서에 있는 주제가 아닌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유치원 생활환경, 과당으로 인한 식품,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들이 위험하다'라는 주제를 잡아 글을 썼습니다.

이 외에도 영어 활동시간에 발표 자료를 유아들에게 보여주는데 그림책 형식으로 제작하고, 수학 교과목인 확률과 통계 시간에 관련 통계 개념들을 이용해 우리나라 어린이 사망에 관한 통계 그래프를 보고서로 직접 작성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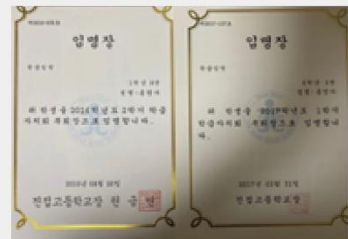
사회과목인 동아시아사 시간에도 동아시아의 나라인 우리나라, 일본, 중국, 몽골 등의 어린이날을 조사해 학우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저는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고등학교에서 배운 교과목에서도 제가 전공에 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고, 이는 많은 면접관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나의 부족한 부분 극복하기.

고등학교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학교생활이 100% 완벽하다고 자부하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위와 같이 많은 학교 활동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족한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체적 영어 과목의 성적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다른 교과목들과 많은 성적 차이로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극복하고자 아침 7시에 등교해 영어 선생님과 아침 자습을 하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구하고 영어 과목 특성상 단기간에 성적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활기록부에 나온 영어 등급은 제가 영어 과목에 대해 쏟은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관련 학교 활동을 해서 영어 성적은 낮지만, 영어에 관한 관심과 열정은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ucc대회,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 글쓰기 대회 등 교내 행사에 모두 참여하였고, 수상이 있는 대회에서는 수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영어 실력이었지만, 친구들의 도움, 선생님들의 도움과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여 노력하며 영어에 관한 열정을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학년 때부터 문과를 선택하게 되어 자연계열의 교과목인 수학과 과학을 접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하는 사회에 살기 위해서는 교사의 융통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과 특성상 교과목이 별로 개설되어 있지 않아 학교 활동으로 부족한 역량을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명 아이디어 대회,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등을 참여하였고, 우수한 부분에서는 수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관심을 보여 다른 학생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5. 기본적인 전공 관련 학교 활동.

앞서 이야기한 활동들은 조금 특색 있는 활동들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유아교육과에 입학하기 위해 3년간 해온 활동들은 유치원교사로서 키워야 할 역량과 관련하여 리더십과 봉사 정신, 의지력이 3가지로 나누어 활동을 해왔습니다.

우선 리더십에 관련해서는 1학년, 2학년에 학급에서 학급 자치회 부회장으로 학급 내에서 리더십을 키우고자 하였으며,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1년간은 학생자치회 바른 생활부로 활동하면서 전교생들과 소통하는 등의 행사 및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아동 관련 직종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여 활동하는 '키즈덤'이라는 동아리에서도 부장을 맡아 동아리 활동을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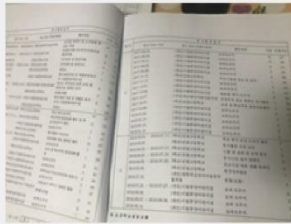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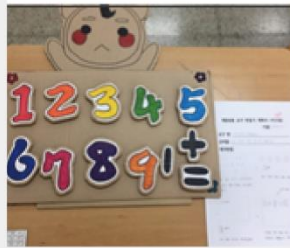
두 번째는 봉사 정신 역량에 관해선 아동 관련 봉사 활동을 3년간 약 200시간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양주 도O 유치원, 남양주 풍O 시립어린이집, 오남시립어린이집, 진건 아동 지역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꾸준히 봉사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헌혈, 학생자치회 관련 교내 캠페인 봉사 활동, 학급 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봉사 정신에 관한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급에서 봉사상을 3년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급에서 오래 도우미(특수반 친구 도우미)를 맡아 그 학생이 일반 학급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표창장도 2년간 봉사 부분에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은 꼭 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해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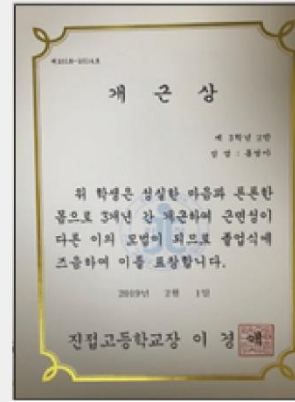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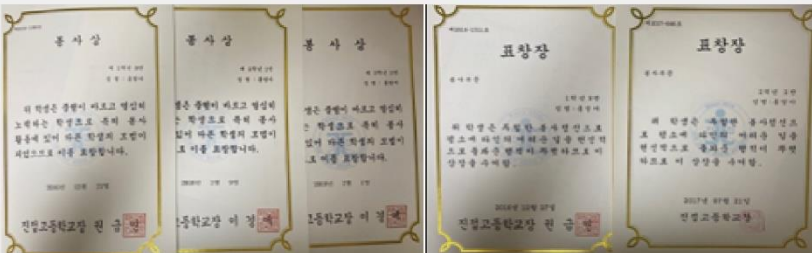
학급 투표로 인해 추천으로 수상을 하게 되어 굉장히 부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강릉원주대학교 면접에서 봉사상을 다른 학생들보다 많이 수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의도치 않은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서 선한 행동으로 보였기에 봉사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지력과 관련되어서는 학교를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빠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은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약속 중 하나라고 생각하여 출결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3년 개근상을 받게 되었고,

많은 면접관에게서 성실하다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 독서 활동을 1년에 3권씩 꾸준히 읽기로 저와 약속하여 전공 관련해서는 총 10권 이상의 책을 읽었습니다.

독서에서는 무조건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책을 골라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관심 있는 책을 읽으니 면접 준비할 때도 암기가 아닌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교사의 꿈을 가지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면접스터디를 만들어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관련 토론도 진행하면서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하였고, 더불어 유아교육과에 진학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많은 입학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서 학생들은 이미 늦었다고 하거나 자신의 활동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합니다. 하지만 3학년 1학기에 준비해도 충분히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 원하는 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봉사 활동은 1, 2학년 때 아예 안 하다가 3학년 때 100시간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면접관에게 질문이 들어왔고, 그는 1, 2학년 때 봉사를 하지 못한 이유(자신이 1, 2학년 때 꿈이 그쪽이 아니었음)를 잘 답변하여 그 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즉, 3학년 1학기에 면접 준비,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봉사 활동 등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코로나 19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기에 여건이 잘 되어있지 않지만, 교과와 관련되어 비대면 학교 프로그램 등에는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에 관련되어 너무 잘 된 사례들을 보고 자신과 비교 하지 말고, 자신만의 입시 준비 방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교 인재상과 학과의 인재상을 파악해 준비한다면 합격의 문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릉원주대학교에 미래 '해람인'이 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